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탁구대회:** 교인 탁구대회가 99 Gillies Ave에서 10월 20일(토)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 **바자회:** 선교와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일시: 11월 17일(토) 오전 8시 ~ 오후 10시 장소: Hall 및 교회 마당
물품수집: 10월 14일부터 주일, 수요일 담당: 이정인 집사
기증할 물품내용을 물품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임:** 오늘 1부 예배 후에 바자회 준비를 위한 각 남선교회 임원 모임이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 **후원:** 바누아투 삼마 교회 학생들을 후원하는 성도들은 계속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연석회의:** 항존 직분자 연석회의를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감사:** 중 고등부 수련회를 잘 섬겨 주신 2여선교 회원들, 점심 준비하신 주방봉사 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월례회:** 2남 선교회, 3여 선교회 월례회가 유아실과 아동부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 **봄소풍:** 유치부 아동부 연합 봉소풍을 떠납니다. 일시 10월 13일(토) 12-4PM 장소: oak tree kindergarten 준비물: 간편한 복장

10월 새벽 기도회 본문

5일: 욥기 3:11-26 절망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12일: 욥기 7:1-10 고난 중에 구하는 소박한 은총
19일 : 욥기 10:13-22 죽음을 묵상할 때 기억할 것
26일 : 욥기 14:1-12 짧고 덧없는 인생

해외선교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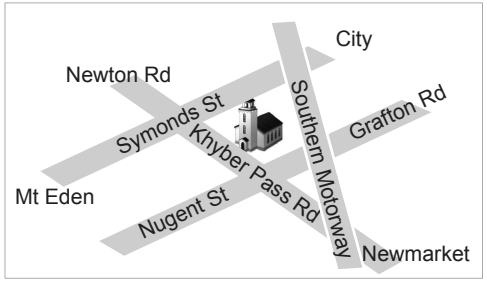
국내선교
밀알장애우 봉사

온라인선교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10월 7일

14권 41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찬양선교를 타녀와서 (정옥자권사)

7월 1일 오클랜드 공항을 출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미국 뉴욕에 도착 후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마이애미 공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에 도착한 후 다시 또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린 후, 장장 44시간을 걸려서 밀알 선교본부에 도착하게 되었다.

1년만에 만나는 월드밀알 단원들이기에 반갑기 그지없지만 이곳 과테말라는 고산지역이라 조금만 큰소리를 내던지 몸을 많이 움직이면 숨이 차왔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빌리면 선교사님들도 1달에 2-3번은 바닷가에 가서 충전을 하고 오신다고 한다.

이나라의 아이들은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라 이번에 계획된 우리들의 사역은 주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알게하고 선하게 살아야하는 목적의식을 갖게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였다.

또 밀알 창단26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사역지를 다녔다. 그 이유는 6개월 전에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당선자가 크리스천이라 이런 배려를 해 준다고 했다. 이 나라는 범죄자가 넘쳐나 시내 전체가 교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000여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짐작이 갔다.

그렇기에 우리 밀알단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버스 앞뒤에서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해 준단다.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이나라 치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시간만 나면 이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드렸다.

또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큰 행사(?)가 드물어서 그런지 가는 곳곳마다 TV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황방송이나 녹화를 하고는 했다. 대통령궁 앞 공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대통령 궁이 얼마나 허름한지 담벼락에 페인트가 벗겨져있고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있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대통령궁이 이러할진데 이나라 경제사정은 어떨지 한눈에 볼 수 있는듯 했다.

사역중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밀알단원 모두는 비를 맞고 그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하며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간의 과테말라 사역을 끝내고 12시간 버스를 달려 도착한 온드라스, 차가 얼마나 흔들리고 더운지 아주 힘든 이동시간이였다. 도착하자마자 짐도 풀지 못하고 비와 땀이 범벅이 되면서도 우리들을 기다리는 이곳 시민(안에서 계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48:9-10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7장	다함께
※ 성시교독	82. 빌립보서 2장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52장	다함께
대표기도		정덕수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12:17-25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두 인생	이태한목사
찬송	492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이태한 목사
기도 / 김정민 집사
성경봉독 / 삿 14:10-20
설교 / 하나님의 방법 / 심창진 목사
찬송 / 453장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이태한 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한상순 집사
성경 / 삿 15:1-8
설교 / 삼손의 분노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365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헌금 지난주: $0.00
총계: $623,838.19

⊙ 10월 교회일지

중고등부 수련회:
10월 4일 (목) - 6일(토)
탁구대회
10월 20일(토)
세례식:
10월 21일(주일)
추수감사 주일:
10월 28일(주일)

⊙ 10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추미선/이경자
새신자 안내:
김광자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방명아 집사
다음 주일 1부: 이광희 장로
다음 주일 2부: 박영태 집사
10월 17일 수요기도: 김윤숙 집사
10월 17일 애찬기도: 박영태 집사
10월 21일 1부: 박제용 장로
10월 21일 2부: 박후임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1)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마시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인간 중심의 전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전도 사역이 일어나도록, 대형 마트의 무차별 등장으로 영세 업자들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데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이 많아지도록.

2. 교회

(1) 탁구대회와 바자회 준비에 많은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은혜롭게 준비가 되도록, 수련회를 은혜롭게 끝낸 학생들이 계속해서 충만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교회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2) 육신의 연약함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경건생활에 우선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해 틈타지 못하도록, 신앙적인 갈등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도록, 성전 건물 구입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3. 국외

인도, 아프리카,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영국에서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여성 할례 불법시술이 은밀히 이루어져 피해자 규모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통과 종교적 신념이라는 명목아래 자행되는 구습이 사라지기를,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연인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갔다. 그들은 3시간이나 늦은 우리들을 지루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찬양을 듣고 정말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을 대할 때 마다 찬양하는 우리들의 가슴도 찡했다. .

이곳 빈민촌을 방문하였다. 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빈민촌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집에 들어서니 겨우 비와 바람을 막을 만한 허름한 집의 작은 방에 5-6명의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가 "할렐루야"하면 "아멘"하고 대꾸를 해주니 반갑기 만 하다. 이렇게 없이 사는 이곳에서도 도둑과 살인이 빈번하다고 하니… 사과를 나눠주니 1년에 한두번 먹어본 다고 한다. 그들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지으신 엉성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보름간의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번 체험하였다. 이렇게 여러시간의 차를 타고 하루에 3차례씩 이동하며 사역을 했는데 나의 고질병인 허리아픔을 고쳐주신 것이다. 떠날때 허리가 아파서 걱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부터 허리아픔이 없어졌다. 하나 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40년전 내가 교직에 있었을 때 담임을 맡았던 제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밀알단원으로 올해 처음 참석을 했는데 미국 아틀란타에서 왔다고 한다. 16살때 만났던 여학생이 51살이 되었으니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런 제자를 하나님께서 한국도 아닌 온드라스에서 만나게 하여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일정 중에서도 100여명 되는 단원들이 한사람도 낙오자 없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원하심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치 아니한가!